

송상헌재단, 11일 창립기념 심포지움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당시 업적 기려

재단법인 송상헌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(이하 송상헌재단)이 오는 11일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.

7일 송상헌재단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 ‘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, 회복적 정의로- No Sustainable Peace, Without Justice’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. 이번 행사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조은희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된다.

재단은 송상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(서울대 명예교수)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송 전 소장의 제자들과 그 업적의 의미를 동의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.

송 전 소장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직접 기조 강연을 한다. 송 전 소장은 ‘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, 평화 그리고 인권’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송상헌재단의 설립 정신과 관련된 정의, 평화, 인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

김진 경희대 교수가 ‘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-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, 평화, 인권의 길’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,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‘정의평화인권과 국제조세-국내와 법분야를 넘어’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.

발표 후에는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. 이윤제 명지대 교수, 이창희 서울대 교수, 이근관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.

/김철준 기자 kcjoon0711@



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, 11일 창립기념 심포지움

기사승인 [2022-11-07 14:03]

(재)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

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, 회복적 정의로

No Sustainable Peace, Without Justice

2022.11.11(금)

10:00~12:00

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

세부 프로그램

기조강연 "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
정의, 평화 그리고 인권"

송상현 (전 ICC 소장, 서울대 명예교수)

발표1 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

-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, 평화, 인권의 길

김진 (경희대 교수, 전 검사, ICC Visiting Professional)

발표2 정의평화인권과 국제조세-국내와 법분야를 넘어

박훈 (서울시립대 교수, 전 국제형 납세자보호관)

종합토론 좌장 황철규 (국제검사협회 회장)


토론이윤제 (명지대교수, 전 주몬트리올 총영사 겸 ICAO 대사)

이창희 (서울대 교수, 전 한국세법학회 회장)

이근관 (서울대 교수, UN 국제법위원)



주최: 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
SONGSANGHYUN FOUNDATION

후원:  국회부의장 김영주, 국회의원 조은희

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포스터 / 제공=송상현재단

'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, 회복적 정의로' 주제
송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기조강연... 전문가들 종합토론

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= 재단법인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(이하 송상현재단)이 오는 11일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.

7일 송상현재단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 '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, 회복적 정의로-No Sustainable Peace, Without Justice'라는 대주제로 심포지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. 이번 행사는 김영구 국회부의장(더불어민주당)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된다.

재단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(서울대 명예교수)의 국제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다. 송 전 소장의 제자들과 그 업적의 의미를 적극 동의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.

송 전 소장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직접 기조 강연을 한다. 송 전 소장은 '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, 평화 그리고 인권'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송상현재단의 설립정신과 관련된 정의, 평화, 인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

김진 경희대 교수가 '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-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, 평화, 인권의 길'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,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'정의평화인권과 국제조세-국내와 법분야를 넘어'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.

발표 후에는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. 이윤제 명지대 교수, 이창희 서울대 교수, 이근관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.

김철준 기자 kcjoon0711@gmail.com

©"젊은 파워,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"